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정 대 희* 박 슬 기**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참여 계기로 양국간 농업 협력 및 교류 확대 필요 ”

1 서론¹⁾

- 2023년 9월 4일,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²⁾ 가입하게 되었음. 향후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테말라의 농업 생산현황과 농산물 교역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개시부터 제7차 협상(2015년 6월~2016년 10월) 등 타결 직전까지 협상에 참여한 국가이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최종 서명에는 불참한 바 있음.
- 2021년 6월 한-SICA(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중미통합체제)³⁾ 정상회의에서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의사를 표명하면서 한-중미 FTA 추가 가입 협상이 시작되었음.
-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 인구, GDP, 교역규모가 가장 큰 신흥성장국으로 우리나라 섬유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진출해 있는 시장이며, 미국시장으로의 우회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음. 이번 FTA 타결로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1.1. 과테말라의 일반현황

- 과테말라는 중앙 아메리카 북서단에 위치한 국가로, 북서쪽으로는 멕시코, 북동쪽으로는 벨리즈, 남동쪽으로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역사적으로는 마야문명의 중심지였던 국가이며, 300년 동안 에스파냐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821년 독립한 후 1847년 공화국이 되었음. 이후에도 군사정권과 내전으로 대내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6년 내부 갈등을 종식시키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dhch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k0106@krei.re.kr)

본고는 미국 농무부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1) 본 장은 안수정(2016), CIA Factbook과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2016년 11월 우리나라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타결된 FTA임. 2021년 3월 1일 전체발효되었음.

3) 중앙아메리카의 민주화 및 현대화를 위해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1991년 12월에 출범하였음. 회원국으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 공화국 등 8개국이며, 멕시코, 칠레, 브라질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대만, 스페인, 독일, 일본 등이 지역외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SICA는 UN 정기총회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 있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현재의 국가체제(다당제 체제의 대통령제)를 형성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가부패인식지수도 낮고⁴⁾, 정치도 불안정함. 2024년 1월 14일부로 ‘아레발로(Arevalo)’ 대통령 당선자가 ‘지아미테이(Giamattei)’ 대통령 뒤를 이어 집권할 예정이나, 9월 11일부터 활동하기로 한 차기 정부 인수위가 정치적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리적 환경)** 과테말라는 북부 평야지대, 중남부 및 남부의 고원지대 그리고 남부 태평양 인근의 저지대로 구분됨. 북부 평야지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적고 아열대성 기후대이며, 열대우림을 형성하고 있음. 중부 및 남부의 고원지대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기후대(1,500m 고산지대는 연평균 20~22도 유지)를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의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그러나 이 지역은 화산지대로 지진과 화산활동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남부 태평양 저지대는 플랜테이션 농장이나 목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음.
- **(국토면적 및 농지면적)** 과테말라의 국토면적은 10만 889km²로 우리나라(10만 43km²)와 비슷한 수준임. 농지면적은 4만 612km²로 전체 국토면적 중 42.4%를 차지하고 있으나(우리나라 1만 603km², 16.0%), 경지면적은 1만 554km²로 전체 국토면적의 14.3%에 불과함.
- **(언어)** 에스파냐의 식민통치 영향으로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스페인 본토와는 다른 표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인구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끼체어’를 비롯한 다양한 토착어도 사용되고 있음.
- **(인구)** 총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761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4.0% 수준임. 인구 구성은 토착 원주민과 스페인 혼혈인 라디노(ladino)가 전체 인구의 5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마야인(41.7%), 싱카(Xinca)인(1.8%), 외국인(0.2%) 순서임.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교민도 약 7천 명 거주하고 있음. 0-14세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98%, 15-64세 비중 62.78%, 65세 비중 5.24%로 인구구성비가 젊은 국가임.
- **(농촌인구)**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808만 명이며, 농촌인구 비중은 2015년 49.2%에서 2021년 45.9%로 감소하고 있음. 경제발전에 따라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도시화를 촉진하게 된 주요 요인은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일어난 과테말라 내전 때문임.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농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도시 주변의 빈민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시민의 38%가 슬럼가에 거주하고 있음.
- **(사회환경)** 과테말라는 흉악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인접국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의 피살율을 기록하고 있음.

4) 2022년 기준 24점으로 전체 180개국 중 150위를 차지했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표 1. 과테말라의 일반현황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인구	천 명	16,001.1	16,291.0	16,578.7	16,850.2	17,106.3	17,362.7	17,608.5
농촌인구	천 명	7,879.7	7,946.8	8,006.9	8,045.8	8,064.5	8,078.4	8,076.8
농촌인구 비중	%	49.2	48.8	48.3	47.7	47.1	46.5	45.9
국토면적	천 ha	10,889.0	10,889.0	10,889.0	10,889.0	10,889.0	10,889.0	10,889.0
농지면적	천 ha	4,464.0	4,493.8	4,523.6	4,553.4	4,583.2	4,612.0	4,612.0
농지면적 비중	%	41.0	41.3	41.5	41.8	42.1	42.4	42.4
경지면적	천 ha	1,470.0	1,487.0	1,504.0	1,521.0	1,538.0	1,554.0	1,554.0
경지면적 비중	%	13.5	13.7	13.8	14.0	14.1	14.3	14.3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그림 1. 과테말라 지도



자료: CIA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guatemala/>). 검색일: 2023.11.24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1.2. 과테말라의 경제 현황

- 과테말라의 GDP는 2021년 기준 861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4.8% 수준임. 그러나 중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음. 1인당 GDP는 5천 달러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14.4% 수준임. 부가가치기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 수준임. COVID-19 이전에는 2~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1.8%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동기간 중미 지역 평균 -6.5%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임.
- **(주요 산업)** 과테말라의 주요 산업은 농업, 제조업, 콜센터, 관광 등이며, 농업 등 1차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임(2017년 기준, CIA Factbook).
- **(농업)** 전통적인 농업 국가인 과테말라는 다양한 기후대에서 다양한 농업자원을 생산하고 있음. 설탕, 커피, 바나나, 카르다뎀(Cardamom) 등이 주요 생산품임. 특히 바나나, 설탕, 커피는 과테말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작물임. 바나나는 과테말라의 최대 수출 품목이며, 설탕은 세계 5위의 수출국이고 그리고 과테말라산 아라비카(arabica) 커피도 국제시장에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주요 경제 작물임. 과테말라는 지리적으로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미 등 거대 시장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자국내 농업인력이 풍부하고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농산물 수출이 용이한 이점이 있음.
- **(제조업)** 과테말라의 주요 제조업은 섬유봉제이며, 특히 이 분야는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임(홍석화 2021). 과테말라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150개의 한국계 봉제업체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 1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액 1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⁵⁾. 이는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임.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 분야 조립생산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콜센터)** 과테말라의 콜센터 사업⁶⁾은 최근 증대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분야임. 과테말라는 중미지역에서는 비교적 ICT 기술 수준이 높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콜센터에 근무하는 노동력 중 상당수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지역을 과테말라를 넘어 중미, 멕시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 **(관광)** 과테말라는 1979년 UNESCO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티과(Antigua)시⁷⁾와 Tikal의 마

5) 2021년 기준 약 169개 봉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고객이나 민원인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제해결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차원에서 콜센터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음.

7) Antigua시는 중남미 지역의 도시 중 스페인 식민통치 시절의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임.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야유적 등과 같은 역사유적과 이사발(Izabal) 호수, 카리브 해안, 빠까야(Pacaya) 화산 등 자연환경을 겸비하고 있어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주요 성장산업 중 하나임.

표 2. 과테말라의 경제현황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GDP	십억 \$	62.2	66.1	71.7	73.3	77.2	77.7	86.1
GDP 성장률	%	4.1	2.7	3.1	3.4	4.0	-1.8	8.0
1인당 GDP	천 \$	4.0	4.2	4.5	4.5	4.6	4.6	5.0
농업GDP	십억 \$	6.2	6.4	6.9	6.9	7.3	7.7	8.0
농업GDP 비중	%	10.0	9.7	9.7	9.4	9.4	9.9	9.3

주, 농업GDP는 부가가치 기준임.

자료: World Bank, 검색일: 2023.11.24

2 과테말라의 농산물 생산현황

- 과테말라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0%에서 2021년 9.3%로 감소하였으나, 과테말라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임. 특히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7.6%임.
- 과테말라의 주요 생산 품목은 사탕수수, 바나나, 기름야자 열매, 옥수수, 멜론, 감자 등임.
 -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은 사탕수수, 기름야자 열매, 바나나, 커피 등임.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등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며, 사탕수수와 기름야자 열매는 설탕 및 팜유 생산의 원료로 국내 식품제조업과도 가치사슬이 연결되는 작물임.
-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사탕수수이며,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설탕은 모두 사탕수수로 생산이 됨. 사탕무는 재배되지 않고 있음. 2010대 중반부터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설탕은 과테말라의 주요 외화 획득원이기 때문에 사탕수수는 과테말라 농업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 사탕수수 재배는 주로 태평양 연안이나 카리브해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랜테이션으로 생산되고 있음.
 - 과테말라의 사탕수수 생산은 2010년 이래로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약 3천 4백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21년 생산량은 약 2천 8백만 톤임.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기름야자 열매는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새로운 경제 작물로 부상하고 있음. 2000년도 이후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이 11.3%임. 2000년 32만 톤에 비해 2021년 303만 톤으로 약 9.5배 증가하였음. 이는 팜유 수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사탕수수, 기름야자 열매와 함께 과테말라의 주요 경제 작물인 커피는 해발 1,300~1,900m의 고산 지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생산지는 과테말라의 주요 관광도시인 안티과시임. 과테말라 고산지는 커피 재배에 이점이 많아 고급 품종인 아라비카(Arabica)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어 다른 품목으로 생산을 전환하거나, 아라비카에서 로부스터(Robusta)로 품종 전환을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안규미 2016).
 - 커피 생두 생산량은 2000년 약 31만 톤에서 2021년 약 23만 톤으로 연평균 1.5% 감소하였음.
- 가장 생산량이 많은 과일은 바나나이며, 과테말라는 세계 8위의 바나나 생산국이며, 에콰도르에 이어 세계 2위의 바나나 수출국임. 바나나도 태평양 해안지대와 카리브해 해안지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플랜테이션으로 생산되고 있음.
 - 바나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래로 연평균 7.4%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2000년 바나나 생산량은 약 96만 톤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바나나 생산량은 약 427만 톤임.
 - 플랜테인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연평균 2.0% 생산이 감소하고 있음. 2000년 플랜테인 생산량은 약 27만 톤이었으나, 2021년 생산량은 약 17만 톤으로 감소하였음.
- 과테말라는 바나나 이외에 멜론, 파인애플, 오렌지, 아보카도, 레몬 및 라임, 망고·구아바·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류 생산이 많음. 특히 멜론과 파인애플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임.
 - 멜론 생산량은 2000년 약 19만 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생산량은 약 72만 톤이며, 동기간 동안 생산량이 연평균 6.7% 증가하였음.
 - 파인애플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2000년 생산량은 약 10만 톤이었으나, 2021년 생산량은 약 37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6.5%임.
 - 아보카도는 전 세계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연평균 8.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며, 2021년 생산량은 약 14만 톤임.
 - 오렌지 생산량은 2000년 이후로 연평균 2.3% 증가해 왔으나, 2019년 이후로 약 17만 톤 수준에서 생산이 정체 중임.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레몬과 라임은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약 11~13만 톤 사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망고, 구아바, 망고스틴과 같은 열대과일은 2000년에 비해 최근 생산은 약 30%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약 12~13만 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과테말라는 다양한 위도나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하여 열대과일 이외에도 복숭아, 사과, 포도와 같은 온대성 과일이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열대과일에 비해 생산량이 적으며 최근 생산이 정체되어 있음. 온대성 과일은 자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음.
- 과테말라의 주식은 옥수수이며, 옥수수를 이용하여 토르티야(tortilla)⁸⁾, 타말레(tamales)⁹⁾, 아톨레(atole)¹⁰⁾등을 만들어서 섭취하고 있음. 옥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0% 증가하고 있음.
- 식량작물 중 옥수수 외에 감자 생산량이 많으며, 2000년 이후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품목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5.0%임.
- 쌀도 과테말라의 주요 식량작물이나, 옥수수와 감자에 비하면 생산량이 적음. 쌀 생산량은 2000년 4만 5천 톤에서 2021년 3만 3천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1.5%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과테말라 요리의 특성상 토마토가 중요한 부재료이기 때문에 토마토 생산량이 채소류 중에서는 가장 많음. 토마토 생산량은 2000년 17만 2천 톤에서 2021년 43만 9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토마토 이외에도 양파, 당근, 양상수, 양배추, 고추, 호박 등 다양한 채소가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음.
- 과테말라의 주요 축산물은 우유, 닭고기, 계란, 쇠고기 등이며,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음.
- 2019~2021년 평균 우유 생산량은 약 54만 4천 톤이며, 2000년 이후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 후반부터 생산이 정체되어 있음.
- 동기간 닭고기 생산량은 약 34만 9천 톤이며,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계란의 평균 생산량은 약 25만 9천 톤이며, 연도별 생산의 편차가 있어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음.

8) 옥수수가루 반죽으로 만든 둥글고 납작한 빵

9) 만두와 비슷한 음식으로 옥수수 반죽 사이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찐 후 찌는 음식

10) 옥수수가루에 물, 우유와 설탕과 향신료를 첨가하여 따뜻하게 만든 걸쭉한 질감의 음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쇠고기 평균 생산량은 약 20만 8천 톤이며, 2000년에 비하여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생산이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음.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5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3. 과테말라의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17-'21 평균	연평균 성장률
사탕수수	16,552	18,008	22,314	33,869	29,865	27,669	27,755	27,781	2.5
바나나	955	2,058	2,561	3,796	3,911	4,055	4,273	4,106	7.4
기름야자 열매	320	540	940	2,215	2,780	2,894	3,031	2,835	11.3
옥수수	1,054	1,376	1,638	1,854	1,854	1,972	1,960	1,943	3.0
멜론	186	307	484	558	688	713	722	673	6.7
감자	217	432	482	535	585	599	609	581	5.0
우유(신선)	267	411	463	519	547	559	517	544	3.2
토마토	172	233	295	324	408	421	439	385	4.6
파인애플	100	197	234	284	343	359	371	350	6.5
닭고기	140	151	184	275	342	428	361	349	4.6
계란	81	192	220	260	211	268	268	259	5.9
플랜테인	265	245	193	296	193	189	172	256	-2.0
커피(볶지 않은 것)	312	248	248	226	216	246	227	231	-1.5
쇠고기	62	63	106	198	207	211	215	208	6.1
콩	91	184	209	241	144	134	128	184	1.6
오렌지	104	138	154	161	170	167	168	167	2.3
양파	105	94	122	134	165	171	168	159	2.3
아보카도	26	59	94	115	128	133	136	132	8.2
수박	126	33	66	137	132	132	127	131	0.1
레몬과 라임	128	123	116	125	128	129	130	129	0.1
망고, 구아바, 망고스틴	179	92	110	127	125	126	126	126	-1.7
컬리 플라워와 브로콜리	52	74	89	116	119	120	119	119	4.0
당근	44	32	71	89	95	99	103	98	4.1
파파야	24	24	59	85	90	87	89	88	6.4
양상추	33	17	60	83	85	84	84	84	4.5
양배추	60	60	58	71	73	72	72	72	0.9
고추	22	18	50	57	71	74	75	67	6.1
호박	0	0	0	0	85	89	90	53	-
수수	51	42	47	52	45	54	42	50	-0.9
복숭아	26	34	30	51	47	48	48	47	2.9
돼지고기	23	34	34	42	40	40	38	41	2.4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17-'21 평균	연평균 성장률
대두	30	35	44	38	39	41	42	40	1.6
완두콩	28	53	38	29	39	39	40	38	1.6
참깨	19	44	50	61	38	35	30	36	2.2
육두구, 카르다몸	16	32	23	35	36	36	36	36	4.0
마늘	5	15	29	29	30	30	30	30	8.9
연초	19	16	27	28	30	30	30	30	2.3
쌀	45	25	30	33	23	24	33	29	-1.5
사과	29	22	22	26	25	25	25	25	-0.5
포도	14	16	17	19	20	20	20	20	1.5
코코넛	45	21	23	22	18	14	13	17	-5.7
딸기	7	10	11	14	14	14	14	14	3.7
코코아	2	9	11	11	12	12	12	12	7.9
땅콩	2	3	9	11	10	10	10	10	9.5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과테말라의 가공품은 생산량이 많은 사탕수수, 기름야자 열매 그리고 우유를 활용한 설탕, 당밀, 팜유, 팜핵, 팜핵유 그리고 그 외 낙농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탕수수를 원료로 생산된 가공품들은 설탕과 당밀이며, 그 중 설탕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설탕 생산량은 2000년 163만 2천 톤에서 2021년 265만 5천 톤으로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음. 당밀은 자당 생산의 부산물로 과자, 잼 등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공업용 에탄올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함. 과테말라에서는 당밀을 활용하여 생산된 에탄올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도 하고 있음. 당밀 생산량은 2000년 46만 4천 톤에서 2021년 67만 2천 톤으로 증가하였음. 당밀 생산량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팜유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2000년 6만 5천톤 에서 2021년 80만 5천 톤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4%에 달함.
- 낙농품은 탈지유, 치즈, 생크림, 유장, 버터, 버터밀크 등이 있으나, 탈지유와 치즈를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만 톤이 되지 않는 수준임.
- 이들 품목 외에 맥주가 주요 가공품이며, 그 외 마가린, 대두유, 라드유, 참기름과 같은 식용 기름이 생산되고 있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표 4. 과테말라의 가공품 생산현황

단위: 천 톤, %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17-'21 평균	연평균 성장률
설탕	1,632	2,015	2,336	2,877	2,693	2,963	2,655	2,751	2.5
팜유	65	92	182	522	875	880	805	806	13.4
당밀	464	441	592	775	730	717	672	712	1.9
맥주	92	82	172	194	209	160	220	198	4.5
팜핵	16	27	47	146	191	175	190	176	13.2
팜핵유	7	9	19	46	79	85	79	75	12.9
탈지유	10	9	27	31	33	33	34	33	6.3
치즈	9	11	14	16	17	17	2	14	-7.0
마가린	4	4	19	10	10	11	10	12	3.9
대두유	6	7	8	14	6	7	7	7	1.4
생크림	0	3	5	6	7	7	7	7	-
라드유	4	4	4	4	4	3	3	4	-1.1
유장	1	1	3	3	3	3	3	3	3.7
버터	1	1	1	2	2	2	2	2	6.0
참기름	0	0	2	3	1	2	2	2	8.9
버터밀크	0	2	0	1	1	2	1	1	-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3 과테말라의 농산물 교역 현황

3.1. 과테말라의 對세계 농산물 수출

■ 과테말라의 對세계 농산물 수출액¹¹⁾은 2017~2021년 평균 약 57억 9,600만 달러이며, 동기간 과테말라의 전체 수출액 117억 1,200만 달러의 49.5% 수준임.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3.3%였으나, 2020년에는 52.8%까지 증가하였음. 2021년에는 전년도 보다 감소한 47.3% 수준임. 2010년 이후 과테말라 농산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3%이며, 이는 동기간 전체 수출 증가율 4.5% 보다 높은 수준임.

■ 과테말라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최근 5년 평균 기준으로 22억 8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對미국 수출 의존도는 38.1%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 미국 이외 주요 수출국은

11)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03류를 제외한 01류에서 24류까지의 합을 의미함.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엘살바도르(8.1%), 온두라스(5.6%), 멕시코(4.1%), 니카라과(2.6%) 등과 같은 주변 중미 국가가 주를 이루며, 북미 국가인 캐나다(2.8%)도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임.

-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네덜란드(6.3%)나 역사적 관계가 있는 스페인(3.3%)도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임.
- 사우디아라비아(3.2%), 아랍에미리트(2.3%)와 같은 중동국가로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2.2%), 중국(1.1%)으로도 수출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과테말라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며, 2014년 3.7%에 비하여 최근 들어 감소하였음.

표 5. 과테말라의 국가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비중
對세계	5,396	5,292	5,640	6,158	6,494	5,796	100.0
미국	1,871	1,940	2,038	2,089	2,268	2,208	38.1
엘살바도르	376	400	413	435	518	472	8.1
네덜란드	335	330	277	287	350	368	6.3
온두라스	253	244	276	295	362	322	5.6
멕시코	243	202	196	217	277	240	4.1
스페인	63	134	142	176	233	193	3.3
사우디아라비아	110	124	192	318	181	185	3.2
캐나다	137	134	196	176	150	164	2.8
니카라과	125	123	118	139	174	153	2.6
아랍에미리트	82	86	146	238	109	131	2.3
일본	147	111	114	152	117	128	2.2
이탈리아	61	69	94	108	203	121	2.1
독일	136	105	83	92	111	101	1.7
코스타리카	87	88	89	85	91	94	1.6
영국	94	75	92	69	90	81	1.4
칠레	69	97	84	74	55	81	1.4
파나마	66	77	80	63	80	80	1.4
도미니카공화국	48	69	62	60	75	76	1.3
벨기에	67	69	62	49	89	74	1.3
중국	17	22	52	37	85	61	1.1
이집트	16	17	24	135	85	56	1.0
한국	52	55	22	59	76	56	1.0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바나나, 향신료(육두구, 메이스, 카르다뭉), 커피(볶지 않은 것), 팜유, 당류(정제설탕, 원당) 등이며, 향신료를 제외하고는 과테말라의 주요 생산 품목과 일치함.
- 신선 농산물 중에는 멜론, 플랜테인,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류와 콩, 참깨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기타조제식료품, 기타무알콜음료, 페스트리 등 가공품도 수출되고 있음.

표 6. 과테말라의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바나나	167	238	357	716	845	842	814
향신료(육두구, 메이스, 카다뭉)	79	70	308	243	650	1,137	659
커피(볶지않은것)	575	464	714	663	663	652	927
팜유	14	30	126	283	391	466	702
정제설탕	-	-	-	2	370	312	312
원당	191	237	725	848	328	268	198
기타조제식료품	57	71	125	156	185	237	266
기타무알콜음료	3	43	66	129	130	124	159
페이스트리	22	37	60	104	122	125	145
멜론	48	64	108	150	131	134	99
플랜틴	8	23	27	46	104	111	114
기타조제과일	3	5	20	61	69	82	106
기타콩	1	3	9	48	68	81	89
완두콩	11	26	34	56	67	73	84
설탕과자	6	22	40	66	66	59	80
당밀	5	22	43	54	57	71	62
냉동채소	14	9	5	45	57	64	68
잎담배	43	26	52	63	57	47	70
팜핵유	1	5	17	29	39	45	76
에틸알코올	9	14	25	45	51	36	53
참깨	18	27	34	44	35	37	54
기타견과류	0	13	12	23	46	39	38
시리얼	29	34	31	28	38	39	38
채소(기타저장처리)	7	13	17	27	30	38	44
파인애플	0	12	6	9	45	40	16
개 및 고양이 사료(소매용)	0	1	5	10	22	30	41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과테말라의 주요 외화획득원인 바나나의 수출액은 2000년 1억 6,700만 달러에서 2021년 8억 1,400만 달러로 약 4.9배 증가하였음. 바나나 수출은 증가 추세였으나, 2019년 이후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과테말라가 바나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2017-2021년 5개년 평균 수출 물량 중 약 89.9%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 외에 온두라스(2.8%), 네덜란드(1.5%), 엘살바도르(1.3%), 이탈리아(1.1%) 등으로도 수출하고 있음. 과테말라의 바나나 수출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임. 이는 2012-2016년 5개년 평균 기준 0.5%에 비해 감소한 수준임.

표 7. 과테말라의 국가별 바나나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출량	비중	국가명	수출량	비중
對세계	2,041.3	100.0	對세계	2,457.4	100.0
미국	1,845.8	90.4	미국	2,208.0	89.9
온두라스	42.6	2.1	온두라스	68.4	2.8
엘살바도르	39.3	1.9	네덜란드	37.1	1.5
이탈리아	39.1	1.9	엘살바도르	32.0	1.3
네덜란드	15.5	0.8	이탈리아	25.8	1.1
터키	11.5	0.6	독일	23.1	0.9
한국	11.1	0.5	영국	12.4	0.5
독일	9.1	0.4	폴란드	11.5	0.5
일본	8.7	0.4	러시아	10.5	0.4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바나나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은 향신료(육두구, 메이스, 카르다몸)이며, 향신료 수출액은 2000년 7,900만 달러에서 2021년 11억 3,700만 달러로 약 14.3배 증가하였음. 과테말라의 향신료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출하는 해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원산지 제품(온두라스)을 수입한 후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0년 11억 3천만 달러의 높은 수출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수출액은 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수준으로 감소함.

- 과테말라가 향신료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이며,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2021년 5개년 평균 기준, 25.1%, 21.7%임. 그 외 수출국은 주로 중동, 서남아시아 국가들임.

표 8. 과테말라의 국가별 향신료(육두구, 메이스, 카르다몸)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출량	비중	국가명	수출량	비중
對세계	36.7	100.0	對세계	42.5	100.0
사우디아라비아	8.8	23.9	사우디아라비아	10.6	25.1
아랍에미리트	7.7	21.1	아랍에미리트	9.2	21.7
요르단	2.3	6.3	방글라데시	3.8	8.9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출량	비중	국가명	수출량	비중
시리아	2.0	5.6	이집트	3.0	7.1
방글라데시	2.0	5.5	파키스탄	2.0	4.8
인도	1.9	5.3	요르단	1.4	3.3
파키스탄	1.8	5.0	터키	1.4	3.2
이스라엘	1.2	3.3	시리아	1.0	2.4
이집트	1.0	2.9	싱가포르	1.0	2.4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세 번째로 수출액이 큰 품목은 커피(볶지 않은 것)이며, 2010년 이후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021년 수출이 9억 2,70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2017년 이전에는 수출량 감소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에는 수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과테말라가 커피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38.4%), 일본(12.5%), 캐나다(11.1%) 등을 비롯하여 벨기에(8.0%), 독일(5.0%), 이탈리아(4.6%), 한국(3.5%) 등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음. 과테말라 커피 수출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6년에는 1.8% 수준이었으나, 최근(2017-2021년)에는 3.5%로 증가하였음.

표 9. 과테말라의 국가별 커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출량	비중	국가명	수출량	비중
對세계	198.6	100.0	對세계	208.0	100.0
미국	82.7	41.7	미국	79.9	38.4
일본	31.6	15.9	일본	25.9	12.5
캐나다	20.4	10.3	캐나다	23.0	11.1
벨기에	13.4	6.7	벨기에	16.5	8.0
독일	11.8	5.9	독일	10.4	5.0
이탈리아	8.8	4.5	이탈리아	9.6	4.6
노르웨이	3.9	2.0	한국	7.2	3.5
한국	3.5	1.8	중국	6.6	3.2
베네수엘라	2.5	1.3	네덜란드	3.0	1.5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팜유는 전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수출이 급증한 품목으로, 2000년 1,400만 달러에서 2021년 7억 200만 달러로 50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2-2016년 기간의 과테말라의 주요 팜유 수출국은 멕시코(43.2%), 네덜란드(27.2%), 엘살바도르(10.8%), 독일(9.1%) 등이었으나, 2017-2021년 최근에는 멕시코 비중이 43.2%에서 23.4%로 감소하고 스페인(16.6%), 이탈리아(9.2%) 등 유럽국가로의 수출이 증대되었음.

표 10. 과테말라의 국가별 팜유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출량	비중	국가명	수출량	비중
對세계	438.1	100.0	對세계	767.8	100.0
멕시코	189.2	43.2	네덜란드	205.7	26.8
네덜란드	119.2	27.2	멕시코	179.7	23.4
엘살바도르	47.1	10.8	스페인	127.8	16.6
독일	39.9	9.1	이탈리아	70.8	9.2
온두라스	13.8	3.2	엘살바도르	59.2	7.7
니카라과	12.7	2.9	독일	33.2	4.3
베네수엘라	6.6	1.5	니카라과	23.7	3.1
도미니카 공화국	4.3	1.0	온두라스	19.5	2.5
미국	2.0	0.5	도미니카 공화국	15.2	2.0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정제 설탕, 원당 등 당류도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이며, 당류 수출은 201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원당 수출 중 일부는 정제 설탕으로 대체된 것으로 분석됨. 원당 수출에서 정제설탕으로 수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수출 품목 및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2012-2016년 기준 과테말라가 자당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11.8%), 칠레(8.1%), 한국(8.1%), 중국(8.0%) 캐나다(6.6%), 가나(5.6%), 대만(5.0%)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었음. 반면 2017-2021년 기간에는 자당 수출량도 감소하였지만, 캐나다(19.5%), 미국(18.3%), 대만(8.7%), 뉴질랜드(6.2%), 말레이시아(5.0%) 등 북미의 수출 집중도가 증가되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비중이 감소하였음.
- 2012-2016년 정제설탕의 96.8%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되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 정제설탕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출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했음. 2017-2021년 기준 정제설탕 주요 수출국은 칠레(21.7%), 코트디부아르(11.0%), 미국(8.6%), 모리타니(7.8%), 자메이카(5.4%), 아이티(5.2%) 등으로 다변화되었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표 11. 과테말라의 국가별 원당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출량	비중	국가명	수출량	비중
對세계	1,955.0	100.0	對세계	969.9	100.0
미국	230.6	11.8	캐나다	188.8	19.5
칠레	158.6	8.1	미국	177.4	18.3
한국	158.4	8.1	대만	84.6	8.7
중국	155.4	8.0	뉴질랜드	60.5	6.2
캐나다	129.5	6.6	말레이시아	48.7	5.0
가나	110.0	5.6	페루	44.3	4.6
대만	98.1	5.0	아이티	36.1	3.7
시리아	80.0	4.1	코트디부아르	34.9	3.6
아이티	70.9	3.6	한국	34.0	3.5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표 12. 과테말라의 국가별 정제설탕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출량	비중	국가명	수출량	비중
對세계	3.1	100.0	對세계	724.0	100.0
도미니카 공화국	3.0	96.8	칠레	157.3	21.7
바하마	0.1	2.6	코트디부아르	79.9	11.0
온두라스	0.0	0.3	미국	62.4	8.6
니카라과	0.0	0.2	모리타니	56.1	7.8
엘살바도르	0.0	0.0	자메이카	39.3	5.4
			아이티	37.9	5.2
			가나	34.6	4.8
			멕시코	26.5	3.7
			트리니다드토바고	24.8	3.4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3.2. 과테말라의 對세계 농산물 수입

- 과테말라의 對세계 농산물 수입액은 2017~2021년 평균 약 31억 9,000만 달러이며, 동기간 과테말라의 전체 수입액 205억 3,700만 달러의 15.5% 수준임. 농산물 수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2%였으나, 2020년에는 17.6%까지 증가하였음. 2021년에는 전년도 보다 감소한 15.5% 수준임. 2010년 이후 과테말라 농산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7%이며, 이는 동기간 전체 수입 증가율 6.1% 보다 높은 수준임.
- 과테말라의 농산물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최근 5년 평균 기준으로 13억 5,9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음. 對미국 수입 의존도는 42.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 미국 이외 주요 수입국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은 멕시코(13.0%), 엘살바도르(8.8%), 코스타리카(8.6%), 온두라스(3.4%), 니카라과(3.3%), 칠레(2.0%), 브라질(1.5%) 등 주로 중남미 국가들임. 한국산 농산물이 과테말라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에 불과함.

표 13. 과테말라의 국가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비중
對세계	2,654	2,871	3,086	3,203	4,135	3,190	100.0
미국	1,148	1,266	1,313	1,339	1,732	1,359	42.6
멕시코	307	380	421	432	530	414	13.0
엘살바도르	258	264	274	284	327	281	8.8
코스타리카	238	258	270	291	320	276	8.6
온두라스	94	93	98	108	143	107	3.4
니카라과	92	103	108	106	121	106	3.3
칠레	54	53	55	69	83	63	2.0
브라질	34	14	65	70	91	55	1.7
캐나다	24	20	27	46	117	46	1.5
아르헨티나	42	29	22	18	97	42	1.3
네덜란드	38	44	33	39	53	41	1.3
파나마	27	45	68	35	20	39	1.2
중국	32	29	31	41	62	39	1.2
벨기에	18	22	23	41	59	33	1.0
스페인	25	26	25	27	41	29	0.9
뉴질랜드	26	29	24	20	29	26	0.8
콜롬비아	22	23	26	24	33	26	0.8
페루	12	16	17	18	28	18	0.6
독일	14	16	16	17	27	18	0.6
아일랜드	10	6	8	15	18	11	0.4
한국	7	7	16	11	12	11	0.3
프랑스	6	10	10	8	13	10	0.3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품목 중 1억 달러 이상 규모를 가진 수입품은 기타조제식료품¹²⁾, 패이스트리, 기타 무알콜 음료 등과 같은 가공식품과 옥수수, 밀 등의 식량작물이며, 그 외 탈지대두박과 닭고기(신선)가 수입되고 있음.

-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하인 품목들 중에는 대두유, 팜유와 같은 식물성 유지류와 쇠고기(신선), 돼지고기(신선)과 같은 축산물 그리고 치즈, 전지분유와 같은 낙농품 등이 있음. 또한, 맥주, 시리

12) FAO 품목분류에 따라 기타조제식료품은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케첩 및 기타 소스, 수프 및 브로드, 식초 및 식초 대용물, 효모와 베이킹파우더, 속을 채운 파스타, 쿠스쿠스(couscous), 단백질 농축물 등의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열, 설탕과자, 기타조제과실, 초콜릿, 조제식료품, 유아용식품 등과 같은 가공식품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사과와 참깨 같은 품목도 일부 수입되고 있음.

표 14. 과테말라의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기타조제식료품	91	100	170	284	384	397	484
옥수수	38	88	149	213	281	307	427
탈지대두박	30	65	120	170	178	184	243
밀	45	95	131	171	165	170	201
닭고기(신선)	11	40	47	83	117	101	165
페이스트리	20	53	70	97	122	117	138
기타 무알콜 음료	17	31	46	83	113	109	143
대두유	11	44	88	56	73	89	196
쇠고기(신선)	10	8	13	53	82	68	103
맥주	1	2	6	33	85	68	92
치즈	7	17	28	50	70	73	87
시리얼	16	35	75	63	68	71	74
설탕과자	14	24	27	39	55	45	67
쌀(조곡)	8	21	41	34	44	70	49
전지분유	40	45	50	40	56	58	49
기타조제과일	5	6	18	39	33	36	56
개 및 고양이 사료(소매용)	4	7	13	23	33	35	50
초콜릿	7	10	18	30	36	35	45
감자(냉동)	6	8	15	25	35	31	42
돼지고기(신선)	3	6	13	20	33	29	46
팜유	3	8	21	17	16	22	62
사과	6	8	15	20	30	33	35
참깨	0	8	6	17	25	22	51
조제식료품	2	10	13	26	28	34	36
유아용식품	5	24	26	27	30	28	32
맥아	5	5	8	24	24	27	37
밀, 메슬린가루	0	5	18	32	34	27	27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0.17.

- 과테말라의 주요 식량작물인 옥수수는 주요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옥수수 수입액은 2000년 3,800만 달러에서 2021년 4억 2,700만 달러로 약 11.2배 증가하였으며, 과테말라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옥수수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전체의 88.2%로 對미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그 외 브라질(8.5%), 멕시코(2.3%) 등 주변국으로부터 일부 수입이 되고 있으나, 과거(2012-2016년)에 비해 미국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표 15. 과테말라의 국가별 옥수수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입량	비중	국가명	수입량	비중
對세계	854.4	100.0	對세계	1,278.8	100.0
미국	709.6	83.1	미국	1,128.2	88.2
브라질	71.0	8.3	브라질	109.0	8.5
아르헨티나	60.8	7.1	멕시코	29.1	2.3
멕시코	7.9	0.9	아르헨티나	6.2	0.5
벨리즈	3.2	0.4	벨리즈	4.6	0.4
엘살바도르	1.5	0.2	엘살바도르	1.2	0.1
온두라스	0.2	0.0	온두라스	0.4	0.0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밀은 과테말라의 생산량이 매우 미미하여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비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밀 수입액은 2000년 4,500만 달러에서 2021년 2억 100만 달러로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과테말라의 주요 밀 수입 국가는 미국(79.1%), 캐나다(14.4%), 멕시코(6.5%) 등으로 주로 인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과거(2012-2016년)에 비하여 미국 비중이 낮아지고 캐나다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국 수입 의존도가 높음.

표 16. 과테말라의 국가별 밀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입량	비중	국가명	수입량	비중
對세계	515.1	100.0	對세계	607.6	100.0
미국	476.3	92.5	미국	480.9	79.1
멕시코	36.8	7.1	캐나다	87.2	14.4
캐나다	1.5	0.3	멕시코	39.3	6.5
엘살바도르	0.5	0.1	엘살바도르	0.2	0.0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주요 식량작물인 옥수수와 밀과 같이 쌀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으로 2000년 쌀 수입액은 8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7,00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4,900만 달러 수준임.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2012-2016년도 미국 수입 의존도는 91.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7-2021년에는 수입국이 다변화되어 對미 수입 의존도는 73.0%로 감소하였음. 미국 이외에 브라질(7.5%), 우루과이(5.6%), 파라과이(4.4%), 코스타리카(4.3%), 온두라스(1.4%) 등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음.

표 17. 과테말라의 국가별 쌀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입량	비중	국가명	수입량	비중
對세계	69.8	100.0	對세계	95.9	100.0
미국	63.9	91.6	미국	70.0	73.0
브라질	2.6	3.8	브라질	7.2	7.5
우루과이	0.9	1.3	우루과이	5.4	5.6
코스타리카	0.6	0.8	파라과이	4.3	4.4
엘살바도르	0.6	0.8	코스타리카	4.1	4.3
온두라스	0.5	0.7	온두라스	1.4	1.4
가이아나	0.4	0.5	대만	0.9	0.9
니카라과	0.2	0.3	가이아나	0.7	0.7
인도	0.1	0.1	니카라과	0.6	0.6
			태국	0.5	0.5
			에콰도르	0.4	0.4
			엘살바도르	0.3	0.3
			아르헨티나	0.1	0.1
			인도	0.1	0.1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 닭고기(신선)는 과테말라의 축산부문 주요 생산품인 동시에 주요 수입품임. 닭고기 수입은 자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2000년 1,100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6,5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과테말라의 닭고기 수입국가는 미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이며, 특히 미국 수입 의존도가 98.3%로 매우 높음.

표 18. 과테말라의 국가별 닭고기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입량	비중	국가명	수입량	비중
對세계	93.7	100.0	對세계	128.2	100.0
미국	91.2	97.3	미국	126.0	98.3
온두라스	1.4	1.5	엘살바도르	1.4	1.1
엘살바도르	1.1	1.2	온두라스	0.7	0.5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쇠고기(신선)의 수입의존도는 낮으나 수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0년 쇠고기 수입액은 1,000만 달러였으나, 2021년 수입액은 1억 3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음.
- 과테말라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가는 니카라과(45.9%), 미국(38.2%) 등이며, 그 외 온두라스(6.7%), 코스타리카(5.4%), 파나마(2.1%), 도미니카 공화국(1.6%) 등과 같은 주변국으로부터도 수입하고 있음. 과거(2012-2016년)에 비하여 미국 수입 비중이 낮아지고 니카라과 수입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하는 추세이나, 니카라과산 쇠고기 가격은 과거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19. 과테말라의 국가별 쇠고기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16년			2017-2021년		
국가명	수입량	비중	국가명	수입량	비중
對세계	8.0	100.0	對세계	16.4	100.0
미국	4.0	50.3	니카라과	7.6	45.9
니카라과	2.7	33.3	미국	6.3	38.2
코스타리카	0.9	11.5	온두라스	1.1	6.7
온두라스	0.3	4.2	코스타리카	0.9	5.4
파나마	0.0	0.5	파나마	0.3	2.1
			도미니카 공화국	0.3	1.6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3.11.24

4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 한국과 과테말라의 농산물 교역액¹³⁾은 2020-2022년 평균 약 9,278만 달러로 한국의 對과테말라 전체 교역액(4억 1,922만 달러)의 약 22.13% 수준임(<표 20> 참조).
- 한국의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입액은 2020-2022년 평균 7,892만 달러이며, 對과테말라 총수입액의 68.10% 수준임. 우리나라 농산물 전체 수입 중 과테말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19% 수준임.
 - 2000년 이후 對과테말라 농산물 총 수입액은 2010년 1억 1,85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사탕수수당(원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감소하였음.
- 한국의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출액은 2020~2022년 평균 약 1,385만 달러이며, 對과테말라 총 수출액의 4.6%를 차지함. 과테말라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7% 수준임.

13) aT AG Code 상에서 분류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합계를 의미함. 과테말라의 교역 통계에서는 농산물이란, 03류를 제외한 01~24류의 합을 의미했으나, 국내 통계부문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와의 통일성을 위해 AG Code 상의 분류 기준을 활용하였음.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출액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17.8%를 기록함.

■ 한국의 對과테말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2020~2022년 평균 약 6,507만 달러 적자임.

- 한국의 對과테말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축산업 부문과 임업 부문은 흑자를 보이고 있음. 농업 부문의 경우 2020~2022년 평균 6,56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축산업 부문과 임산업 부문의 경우 동기간 각각 약 41만 달러, 13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표 20. 양국간 농산물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2 평균	과테말라 비중
수입	총수입	23,260	83,296	129,684	161,867	78,049	138,280	131,362	115,897	0.02
	농산물	22,832	80,022	118,508	77,022	57,619	99,014	80,149	78,927	0.19
수출	총수출	485,527	498,986	319,298	398,439	203,302	383,922	322,763	303,329	0.05
	농산물	505	672	2,321	6,737	12,130	12,617	16,820	13,856	0.17
무역 수지	총수출입	462,267	415,690	189,614	236,572	125,253	245,642	191,401	187,432	-
	농산물	-22,327	-79,350	-116,187	-70,285	-45,489	-86,397	-63,329	-65,072	-

주. 총수입·총수출은 과테말라와 교역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 수출액을 뜻함.

자료: KATI(KATI.net), KITA(KITA.net) 검색일: 2023.11.24.

4.1. 對과테말라 농림축산물 주요 수입품목

- 2022년 과테말라산 농산물 수입액은 2021년 대비 19.1%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 농림축산물 수입은 연평균 17.9% 증가했음.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입액은 2020~2022년 평균 7,892만 7천 달러 수준임.
- 우리나라의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입은 국내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수입 품목은 국내 생산 품목과 거리가 있음. 과테말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커피, 기타 사탕수수, 바나나(기타), 종자(채소, 화초), 소두구, 비그나파세러스콩, 잎담배 등임.
- 과테말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이 되는 품목은 커피이며, 국내 고급 커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0~2022년 과테말라산 커피 수입액은 4,982만 8천 달러이며, 이는 과테말라산 전체 농산물 수입의 63.1%에 해당함. 전체 커피 수입에서 과테말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 수준임.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사탕수수당은 커피 다음으로 수입액이 큰 품목이나, 과테말라가 원당 수출에서 정제설탕 수출로 전환함에 따라 2010년 이후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과테말라산 사탕수수당 수입은 과테말라 수출 품목 전환에 따라 향후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세 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바나나로 2020-2022년 평균 수입액은 1,004만 8천 달러임. 플랜틴은 수입되지 않고 바나나(기타)로 수입되고 있음. 과테말라산 바나나 수입도 감소 추세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으로 바나나 관세 30%가 5년에 걸쳐 인하될 예정임. 따라서 과테말라산 바나나의 수입 가격 인하 효과에 따라 향후 수입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과테말라산 바나나가 우리나라 전체 바나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수준임.
- 채소종자 수입은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화초종자도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소두구(카다멈) 수입도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였음. 소두구 수입 중 과테말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42.7%임.
- 그 외 기타화초, 기타산식물, 난초 등 화훼류 수입도 되고 있음.

표 21.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2 평균	과테말라 비중
농림축산물(합계)	22,832	80,022	118,508	77,022	57,619	99,014	80,149	78,927	0.2
커피	420	435	19,218	20,941	37,590	44,347	67,547	49,828	5.1
사탕수수당	22,169	79,015	94,613	37,374	6,217	44,043	297	16,853	2.2
바나나	0	0	0	15,817	11,950	8,685	9,508	10,048	3.6
채소종자	0	0	633	187	402	479	924	601	0.8
소두구	0	83	171	158	507	596	363	489	42.7
화초종자	0	0	0	0	129	325	393	282	4.0
비그나파세러스콩	0	0	0	254	252	227	366	282	2.0
잎담배	0	0	0	0	0	0	597	199	0.1
기타과실	26	36	0	290	198	0	0	66	0.0
기타채소	0	0	0	221	120	0	0	40	0.0
기타화초	0	20	7	23	45	83	51	60	0.3
브랜드	0	0	7	11	35	40	42	39	0.6
기타산식물	0	24	18	0	34	70	0	35	0.8
판지	0	0	0	148	74	13	0	29	0.0
코코아두	0	0	0	0	23	24	25	24	0.2
삼수 접수	0	8	48	16	20	15	14	16	0.6
자당	0	0	0	0	0	38	0	13	0.0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2 평균	과테말라 비중
커피조제품	0	0	0	1	13	11	0	8	0.0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0	0	0	2	0	9	6	5	0.0
기타식물성유지	0	0	0	0	1	6	6	4	0.0
난초	0	0	0	0	3	0	0	1	0.0
혼합조제식료품	0	0	0	0	0	1	6	2	0.0
양귀비씨	0	0	0	0	2	0	0	1	1.0
기타석제품	0	0	0	0	2	0	1	1	0.0
기타한약재	0	0	0	0	1	1	2	1	0.0
산림수종자	0	0	0	0	1	1	1	1	0.3
해바라기씨	0	0	0	0	1	0	0	1	0.0
물	0	0	0	0	0	0	1	0	0.0
참깨	0	55	84	541	0	0	0	0	0.0
차, 마태 조제품	0	0	0	0	0	0	0	0	0.0

주: 상품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 기준임.

자료: KATI(KATI.net) 검색일: 2023.11.24

4.2. 對과테말라 농축산물 주요 수출품목

- 2022년우리나라의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출액은 2021년 대비 33.3%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농림 축산물 수입은 연평균 17.8% 증가했음. 對과테말라 농산물 교역은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출액은 2020~2022년 평균 1,385만 5천 달러 수준임.
- 우리나라가 과테말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껌련, 단일과실조제품, 기타음료,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펍톤, 기타베이커리제품, 효소, 커피조제품 등으로 품목은 다양하나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신선농산물로는 배가 수출되고 있으며, 전통식품류인 고추장, 간장, 된장 등과 같은 장류와 탁주도 일부 수출되고 있음.
 - 과테말라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껌련의 경우, 2015년 초반까지는 거의 수출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2022년 평균 418만 2천 달러를 수출하였음. 껌련 수출에서 과테말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6% 수준임.
 - 단일과실조제품(과실주스)의 경우도 2015년 이전 수출이 없었으나 2017년 이후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2020-2022년 평균 317만 달러 수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3년 연평균 15.6% 감소함. 단일과실조제품(과실주스) 수출에서 과테말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로 다른 품목에 비하면 과테말라 비중이 높음.

- 기타음료는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 2020-22년 평균 수출액은 234만 달러임.
- 혼합조제식료품 수출액은 2020년 약 142만 달러였으나, 이후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2022년 수출액은 약 52만 달러 수준임.
- 라면의 對과테말라 수출액은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2015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라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2022년 라면 수출은 약 72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 수출은 품목 간의 편차는 존재하나 최근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선농산물인 배 수출은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배수출액은 약 6만 4천 달러임.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2020~2022년 평균 수출액은 약 3만 5천 달러 수준임.

표 22.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2 평균	과테말라 비중
농림축산물(합계)	505	672	2,321	6,737	12,130	12,617	16,820	13,856	0.2
결련	0	0	0	0	2,562	3,540	6,444	4,182	0.6
단일과실조제품	0	17	61	973	3,874	2,878	2,762	3,171	4.6
기타음료	0	3	8	2,207	2,207	2,685	2,138	2,343	0.8
혼합조제식료품	0	0	19	422	1,419	782	518	906	0.1
라면	212	382	827	1,117	804	571	721	699	0.1
펍톤	0	0	0	0	0	0	1,108	369	1.1
기타베이커리제품	0	0	5	5	182	346	702	410	0.3
효소	0	0	0	129	160	291	471	308	1.7
커피조제품	0	4	46	0	104	280	281	222	0.1
소주	18	56	55	111	152	140	124	139	0.2
기타파스타	0	4	0	10	53	195	113	120	0.1
물	0	1	8	93	66	78	209	118	0.1
기타소스제품	0	0	0	701	22	53	170	82	0.0
아이스크림	0	15	0	0	32	113	71	72	0.1
곡류조제품	33	35	8	5	26	26	131	61	0.1
고추장	0	5	0	124	64	46	33	48	0.1
사료첨가제	0	0	0	0	38	38	38	38	0.2
배	0	0	11	0	17	32	64	38	0.1
고추	0	0	26	25	30	43	31	35	0.2
탁주	0	0	0	8	15	35	32	27	0.2
간장	0	15	2	7	9	32	30	24	0.1
된장	0	3	0	15	33	17	9	20	0.2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2 평균	과테말라 비중
빵	0	21	0	0	30	18	4	17	0.0
캔디	0	0	511	120	6	11	35	17	0.1
국수	0	0	243	1	0	28	19	16	0.1
혼합조미료	0	0	0	7	9	18	19	15	0.0
비스킷	13	39	193	184	26	16	2	14	0.0

주: 실품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 기준임.

자료: KATI(KATI.net) 검색일: 2023.11.24.

5 시사점

- 2023년 9월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최근 양국간 농산물 교역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 과테말라의 FTA 참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커피, 바나나와 같은 과테말라의 주요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과테말라는 중미의 농업 강국이나 자국내 농업 생산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주로 인접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과테말라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의 상당수가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TA로 인해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과테말라산 농산물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국내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테말라는 농산물 수출이 주요 외화 획득 수단으로서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국가임. 또한 과테말라 자국 내에서도 농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인 코피아(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가 과테말라에서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우수한 품질의 과테말라산 농산물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과테말라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對과테말라 농산물 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과테말라 시장은 우리 농산물의 중남미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과테말라는 가공식품 수입이 많은 국가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컬처(Culture)와 FTA 체결로 양국간 교류가 증대될 경우 과테말라에 K-푸드(Food) 및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 또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가공품의 경우 과테말라 측이 이번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나, 배 관세 15%는 15년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고춧가루 5% 관세는 5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향후 관세인하에 따라 현지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과테말라는 지리적으로 기후위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빈곤율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제고가 국가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테말라의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등 경제작물은 플랜테인으로 기업형으로 생산되고 있는 등 과테말라 농업의 상당 부분은 소수의 기업형 대농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이러한 기업형 대농들은 기후위기에 대응이 가능하나, 대다수의 중소농들은 기후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아 식량안보 위기에도 노출되어 있음.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등 전반적인 과테말라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농들의 역량을 키우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과테말라 식량안보 제고와 농업발전을 위해 KOPIA와 같은 양국 간의 농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팜이나 농기계 등 농업전후방 산업 진출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과테말라의 농업과 시사점

참고문헌

안규미. (2016). SDGs 와 기후변화 대응-중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187, 25-51.

안수정. (2016).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185, 145-168.

홍석화. (2021). 한· 과테말라 관계 전망. 계간 외교, (137), 171-185.

〈참고사이트〉

CIA Fackbook(<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guatemala/>). 검색일: 2023.11.24.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검색일: 2023.11.24.